



보도시점 2024. 9. 26.(목) 배포 2024. 9. 26.(목)

재외동포청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74주년 기념식 참석

- 조국을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
- 재일학도의용군의 후손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동정]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9월 26일(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열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개최한 행사로, 이 청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장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 대통령 축사는 보훈부 장관이 대독하였으며, 재외동포청장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격려사를 했다.
 - 이 청장은 격려사에서 “조국을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재외동포청장 격려사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왕 길 환	032-585-3107
	대변인실	담당자	주무관	남 지 우	032-585-3110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청장 이상덕입니다.

동포 청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대한해협을 건너신 642명의 재일학도의용군 동포 여러분의 활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이보다 17년 앞서 참전한 것이 우리 재일동포였습니다.

조국의 부름도, 참전의 의무도 없었던 청년들이 구국과 애족의 마음 하나로 책 대신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켜냄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642명 영웅들의 각별한 조국애는 재일 동포사회의 모국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그대로 계승되어, 재일동포들께서는 서울올림픽과 같은 나라의 경사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었습니다.

조국을 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서라도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학도의용군의 후손들과 유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6.
재외동포청장 이상덕